

‘저속·비열’ 대민지침서 말썽

90.6.17

제주도, 일선 공무원에 배포...뒤늦게 거둬

【제주=허호준 기자】 제주도가 최근 행정홍보 및 대민접촉의 지침서로 발간, 도 본청을 비롯한 도내 4개 시·군 일선공무원들에게 배포한 ‘행정홍보의 길잡이’라는 책자가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‘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라’는 등 상식 이하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.

48쪽으로 된 이 홍보책자는 표지에 ‘공무원의 행정홍보 및 대민접촉 요령을 수록했다’고 밝히고 △공보활동요령 △대화·설득

의 기초상식·기법 등 4개 목차로 나눠 대화기법을 소개하면서 △여성의 생리적 결함을 지적하라 △대화의 진행을 자주 중단시켜라 △욕망을 부채질하여 불 붙게 하라 △욕은 연속적으로 퍼부어라 △상대의 열등감을 자극하라 △거짓말일수록 크게 하라는 등의 저속·비열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이 책자는 이와 함께 ‘설득의 목표와 요령’란에서 △부화뇌동의 심리를 이용하라 △부정의 연속타를 쳐라 △칭찬으로 초점을 흐려라 △자기현시욕을 고무시켜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여성 생리적 결함 지적하라
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라
거짓말 크게 하고 욕 퍼부어라
부화뇌동·칭찬 심리 이용하라